

항만 효율성 제고와 항만물류산업의 균형 육성을 위해

#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조속 건립 건의

2023. 6

- 건의처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항만 효율성 제고와 항만물류산업의 균형 육성을 위해

#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조속 건립 건의

## I.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제2의 환적항만이자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2006년 신항 개장 이후 가파른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 진해신항의 개장에 즈음하여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실제로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신항이 개장한 2006년 1,204만TEU에서 2022년 2,207만TEU로 83.3% 증가했고, 진해신항 개장 시기인 2030년 3,012만TEU, 2040년에는 4,260만TEU의 실적이 전망됨.
- 특히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신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진해신항의 개장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항 물동량 처리 비중(경남연구원)

연도	2006	2018	2020	2030(e)
북항	98%	32%	31%	17%
신항	2%	68%	69%	83%

- 이렇듯 부산항의 실질적 항만기능이 신항과 진해신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지만, 항만물류산업을 지원하는 행정 및 지원기관이 산재해 있어 항만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부산시 중구), 한국선급(부산시 강서구), 부산본부세관(부산시 중구), 출입국관리, 검역기관(부산시 중구·영도구), 국제선용품센터(부산시 영도구)

- 꾸준한 항만물동량 증가를 보이는 신항과 새로이 조성되는 진해신항의 기능과 규모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항만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어 항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여기에 부가가치를 입혀줄 항만물류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야함.

- 더욱이 현재 건설 중인 진해신항은 초대형 선박(8,000TEU급)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의 스마트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스마트화도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화주·운송대리업·선사·창고업 등의 항만물류업과 통관·검역 등의 행정서비스, 금융·보험 등의 지원기관, 항만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세계 각국은 항만물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다기능 물류유통센터와 항만 인접 기업들의 집적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이를 통해 항만 인근 지역을 단순 물류기능만이 아닌 주변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 상업, 관광, 주거 등이 잘 아우러진 경제 중심지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왔음.  
※ 월드포트센터(로테르담), PSA인터내셔널(싱가포르), 해운항만센터(광저우)
- 우리나라도 평택항 마린센터와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의 사례처럼 물류가 일어나고 처리되는 곳에 관련 행정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률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여, 배후기업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도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당장 2026년 ‘신항 2-5·6단계’가 준공되는 시점에 신항을 중심으로 다시금 물동량의 가파른 증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현재 신항의 행정 지원, 인프라 부족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더욱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II. 건의

- 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추어 해운·항만·물류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효율성 제고와 항만물류산업의 균형 육성의 선제적 조건 마련을 위해, 신항만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한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 6. 26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